

살촉에게 묻다

비 개인 가을 날

영집 궁시박물관 뜨락에

아득한 시대에서 말 달려온 궁사들

주몽의 후예임을 증명이라도 하듯

과녁을 향해 살을 먹인다

쫓손은 태산을 밀치듯이 강하게 밀어내고

각지 손은 범의 꼬리를 놓지 않으려는 듯

화살을 먹여 쥔 양손을 들어 올린다

손을 풀어 보내야 하는 순간

짧은 입맞춤하고

바람을 가르며 날아가는 살-

후회 없는가

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해도

사랑하는가

미련 없이 떠나보낸

궁사의 가슴

🔄Revision #1

★Created 8 March 2025 07:42:03 by 강근숙

✎Updated 8 March 2025 07:42:58 by 강근숙